

투데이 칼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예방(豫防)'

매년 날씨가 추워지는 이맘 때가 되면 소방서에서는 화재출동으로 인해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된다. 출고 건조한 겨울날씨 특성상 1년 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화재예방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추운 날씨만큼 사용이 잦아지는 겨울용품(전기히터·장판, 전기열선, 화목보일러)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 안 될 존재인 만큼, 안전하게 사용하는 걸 습관화해야 한다.

전기제품 구입시 안전인증(KC마크) 받은 제품인지 확인 하고, 콘센트 내부에 있는 먼지는 스파크가 발생할 때 연소요인이 되기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자주 청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기제품 주변엔 가연성 물질(이불, 소파)과 인화성 물질은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용주
남원소방서장

둘째,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용유 화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력이 우수한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K급 소화기는 음식점·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의료시설 등의 주방에 설치하고, 소화효과는 냉각효과(식용유 온도를 300C 정도 낮춤)와 질식효과(방출시 비누가 거품을 형성, 액체 표면을 덮음)로 나타난다.

셋째, 차량 화재 시 신속한 화재진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는 위치,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일반용 분말소화기 및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입시 꼭 '자동차용용' 표시가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다. 마지막으로, 비상구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생각해보자. 비상구가 철재 선반 등으로 막혀있는 장면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 봤다.

비상구가 있었지만, 비상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 인명사고로 이어졌다.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위반행위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자발적인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고도 한다.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비상구를 확보하여 죽음의 문이 아닌 '생명의 문'으로 사용되길 기대한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작은 관심이 대형 화재예방의 첫걸음이다.

독자제언

겨울철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농기계는 운행이 비교적 간편하여 농촌에서는 겨울철에도 농기계 운행이 끊이지 않아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운행을 해야한다.

농기계 운전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 조작미숙, 안전의식 미흡, 차량 대응에 따른 민첩성이 떨어져 사고발생의 위험이 많고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갓길에 없고 통행량이 적은 농촌 도로를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속 운행하는 경운기 등 농기계는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농기계 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첫째 경운기를 운전하면서 방향을 바꿀 때에는 반드시 전후좌우 및 후

방을 확인해야 하고 경운기나 트랙터 뒷면에는 야광반사지를 부착해서 운행해야한다.

둘째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한다. 반주로 마신 술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향후 교통사고처리 및 보험처리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셋째 농기계 운전시 운전석 옆과 적재함에는 동승자를 태우지 말아야 한다.

농기계는 안전띠 등 안전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차와 충돌하게 되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농기계 교통사고는 대부분 일출 전과 일몰 직후에 발생 빈도가 높은 만큼 운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운행할 경우에도 안전 여부를 확인 후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신서윤 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인사이트가 전송한 최초의 화성 표면 사진



미 항공우주국(나사)이 26일(현지시간) 나사의 화성탐사선 인사이트가 화성 표면에 착륙한 후 처음 전송한 화성 사진을 공개했다. 인사이트호는 앞으로 약 2년 간 화성 표면에서 지질 연구 등 화성 탐사를 계속하게 된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설

전북 홀대 용납해선 안 된다

전북에 대한 홀대가 계속되고 있다. 현 정부는 뭔가 다르리라 기대했는데 이전 정부와 다르지 않다. 홀대가 거듭 폭도 되고 있는데 시정돼 마땅하다. 보도되는 뉴스를 보고 듣자니 해도 해도 너무 무한하다는 생각이 든다. 저번에도 지적한 바 있거니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문제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서울센터는 실적이 부진한데도 국비 지원액을 듬뿍 안겨 주면서 전북센터의 경우는 그 실적이 뛰어난데도 그 지원액이라는 게 너무 적은 것이다. 국립산림치유원의 경우도 그렇다. 경북의 영주 쪽에는국비지원 100%로 1480억원을 배정한 반면 전북의 지리산과 덕유산권은 국비 80% 지원에 827억 원을 배정한 것이다.

지금 전북도에게 거듭거듭 할 많은 분명하다.제록 쟁기에 보통 이상의 힘을 쏟아야겠다. 이같은 말은 생각날 때마다 여러 번 반복했던 바이다. 그래도 지금은 주문의 성격이 다르다. 과거와 같은 정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만 해도 그렇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도권의 흔들기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의 전주 제3 금

계 반발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북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발전 프로젝트를 말했지만 그 성과가 피부로 감각되지 않고 있다. 전북도는 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해 발전 방향을 선도해야 한다. 도지사를 비롯해 고위 관계자들은 지역 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도민의 열망에 고무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전북도는 낙후와 관련된 도민의 분노에 공감해야 한다. 다들 묵도하는데도 우리 지역은 발전상이 시원치 않다. 다른 고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뒤쳐진 채로 있다. 고장의 발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전북도는 제 몫을 쟁기는 억척스러움을 보여야겠다.

전북도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전북의 몫을 온전히 챙겨야 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래야 한다. 도민들은 지역 발전을 열망하고 있다. 도지사와 고위 관계자들은 심각해야 한다. 부응하는 차원을 넘어선도하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주문하는 것은 그 래서이다. 도내 대형 국책사업들이 더딘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개발 속도를 올려야겠다. 발전의 실체를 제대로 보여주려면 지금 예산 확보와 관련해 전북도의 실력발휘가 절실하다.

청년들에게 희망의 근거가 돼야한다

전북도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근거가 돼줘야겠다. 도내 미취업 청년들이 아직도 '별 전북'을 말하고 있다. 지역의 낮은 고용률 때문에 발전폭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답답한 것은 열 명중 네 명꼴로 비경제 인구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심각한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열 핏 생각해 비경제 활동 인구가 늘고 있는 것을 두고 그제 무슨 고민거리라고 말할 이도 있을 지 모르겠다. 일하기 싫어서 비경제 활동인구가 된게 아니냐고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그렇게 단정할 것이 아니다.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된 이들은 일반 실업자보다 문제가 더 심각하다. 아예 취업하기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도내에 관함은 일자리가 더 많아 졌다. 관함은 일자리 마련의 책임은 전북도를 비롯해 대기업들에게 있다. 그리고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다. 다들 진정성을 가지고 관함은 일자리 만들기 에 나서야 한다. 일자리 만들기에 협조하는 책 다가가 그만 두기를

반복하는 것은 청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전북도와 공기업과 민간 기업들은 눈을 떠야 한다. 전북 지역의 취업률이 매년 전국 최하위 수준 이니 답답한 새얼이다.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이들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지적하는데 우리 지역의 청년 고용 이 평가를 받으려면 관함은 일자리 만들기가 누구에게나 공감되는 거라야 한다. 기간제 일자리 나 시간제 일자리는 결코 관함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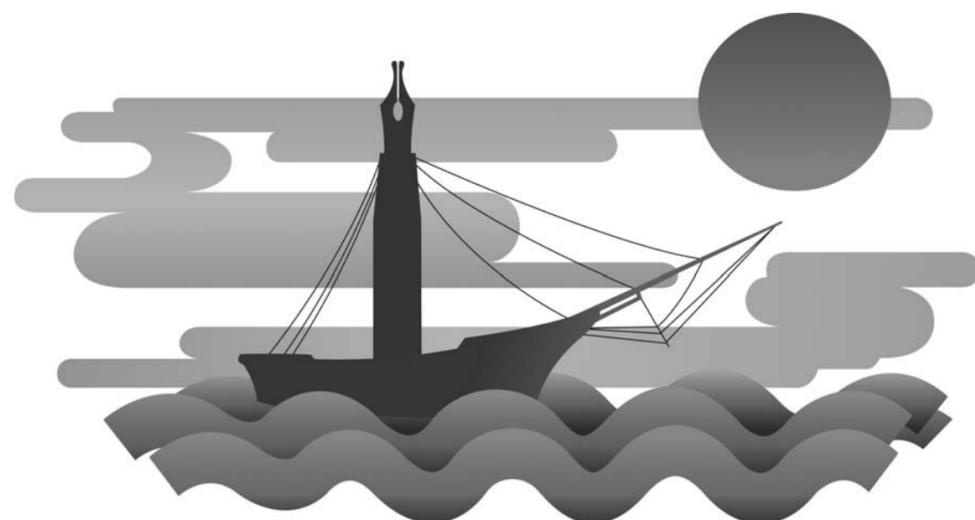
전북도는 도내의 많은 젊은이들이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취업의지를 상실한 젊은이들의 입장을 헤아려야 달라는 주문이다.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전북도는 그 책임이 막중하다. 매년 전국 꼴찌 수준의 취업률은 말이 안 된다. 비경제활동자로 분류된 이들은 높고 싶어서 높고 있는 게 결코 아니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쓰고 애쓰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 버린 것을 알아야 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